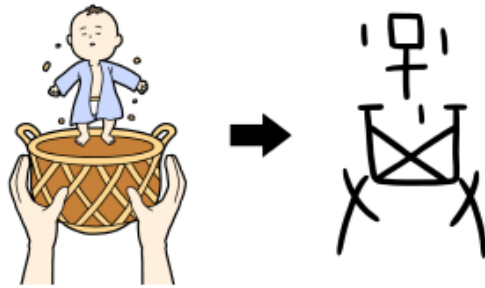


3
-
41

회의문자①



棄

버릴 기

棄자는 '버리다'나 '그만두다', '돌보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棄자는 木(나무 목)자와 弃(버릴 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棄자의 갑골문을 보면 죽은 아이를 바구니에 담에 버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버리다'라는 뜻의 弃자이다. 해서에서는 바구니의 재질을 표현하기 위해 木자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棄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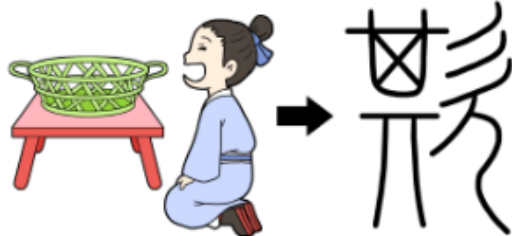
소전



해서

3
-
42

형성문자①



欺

속일 기

欺자는 '속이다'나 '거짓', '허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欺자는 其(그 기)자와 欠(하품 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其(그 기)자는 곡식의 겨·티끌·싸라기 등을 걸러내는 데 쓰는 '키'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欺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사람을 그린 欠(하품 흠)자를 응용한 글자로 '속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欺자에 쓰인 欠자는 남을 속이기 위해 입을 떠벌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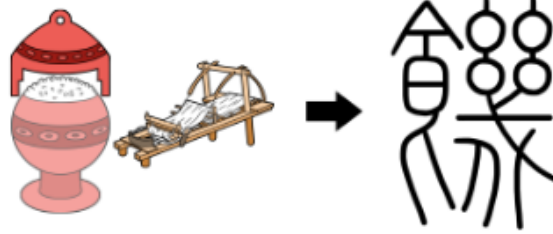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飢

주릴 기

飢자는 '굶주리다'나 '흥년이 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飢자는 食(밥 식)자와 几(안석 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소전까지만 하더라도 饑(주릴 기)자가 '굶주리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饑자는 食자와 幾(기미 기)자가 함께 결합한 것이지만, 幾자나 几자 모두 발음을 위해 쓰인 것일 뿐 뜻을 전달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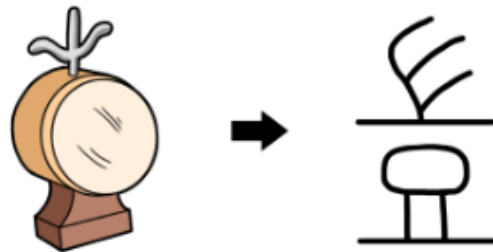
饑

소전

飢

해서

상형문자①



𡇗

어찌 기

𡇗자는 '어찌'나 '승전악'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𡇗자는 '어찌'라고 할 때는 '기'라 하고 '승전악'이라 할 때는 '개'로 발음한다. 𡇗자는 豆(콩 두)자와 山(되 산)자가 결합한 모습이지만 이는 단지 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소전에 나온 𡇗자를 보면 장식이 달린 북이 𡇗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전시에 사용하던 북을 그린 것으로 𡇗자는 전쟁의 승리를 알린다는 의미에서 '승전악'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어찌'나 '어찌하여'와 같은 의문형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心(마음 심)자가 더해진 愷(즐거울 개)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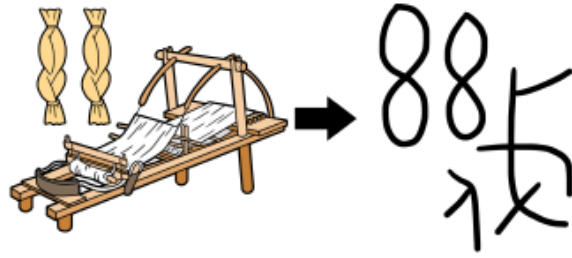
소전

𡇗

해서

3
-
45

회의문자①



幾

몇 기

幾자는 '몇'이나 '얼마', '자주'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幾자는 戈(창 과)자와 人(사람 인)자 幺(작을 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에서 戈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베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幾자는 옷감을 짜는 직조기인 베를 그린 것이다. 그래서 幾자의 본래 의미도 '베를'이었다. 베틀로 옷감을 짜기 위해서는 날실을 수없이 올렸다 내려야 한다. 그래서 幾자는 수없이 날실을 조작한다는 의미에서 '몇'이나 '얼마', '자주'와 같이 '수'와 관계된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그래서 후에 여기에 木(나무 목)자를 더한 機(틀 기)자가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幾

금문

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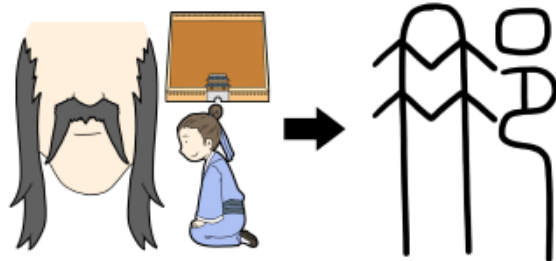
소전

幾

해서

3
-
46

회의문자①



那

어찌 나:

那자는 '어찌'나 '어떤'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那자는 𠂔(나아갈 염)자와 邑(고을 읍)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𠂔자는 양 갈래로 늘어트린 머리칼과 수염을 그린 것으로 서역에 사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서역 남성들의 머리칼과 수염을 특징지어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邑자가 결합한 那자를 풀이하기 위해선 중국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국어에서 那자는 '저것'이나 '저것들'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那자에서 말하는 '저것들'이란 변방 지역에 살던 서역인이라는 뜻이다. 서역 남자를 특징지어 그린 𠂔자에 邑자를 결합해 성 밖에 살던 서역인을 지칭하는 뜻을 갖게 된 것이다. 다만 우리말에서는 '어찌'나 '어떤'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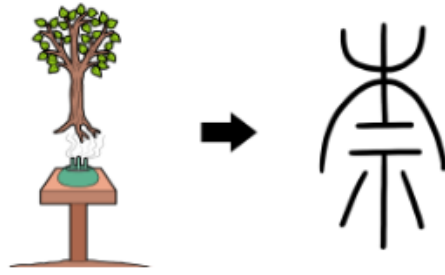
소전

那

해서

3
-
47

회의문자①



奈

어찌 내

奈자는 ‘어찌’나 ‘능금나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奈자는 大(클 대)자와 示(보일 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木(나무 목)자와 示자가 결합한 𣎵(능금나무 내)자가 쓰였었다. 𣎵자는 ‘능금나무’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여기에 제단을 뜻하는 示자가 들어간 것은 능금나무 열매가 제사음식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는 大자가 쓰인 奈자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뜻 역시 ‘어찌’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𣎵(능금나무 내)자가 ‘능금나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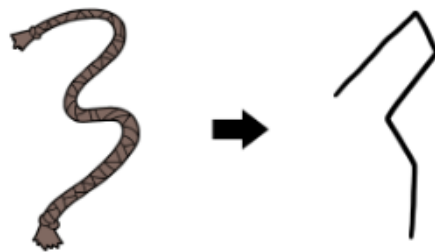
소전

奈

해서

3
-
48

상형문자①



乃

이에 내:

乃자는 ‘이에’나 ‘곧’, ‘비로소’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乃자의 유래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乃자의 갑골문을 보면 마치 새끼줄이 구부러진 것과 같은 모습이 ㄴ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乃자에 ‘노 젓는 소리’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언가를 휘두르는 모습을 표현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과는 관계없이 乃자는 일찍부터 ‘이에’나 ‘곧’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참고로 乃자는 한때 ‘너’나 ‘당신’의 다른 말로 쓰이기도 했다.

ㄴ

갑골문

乃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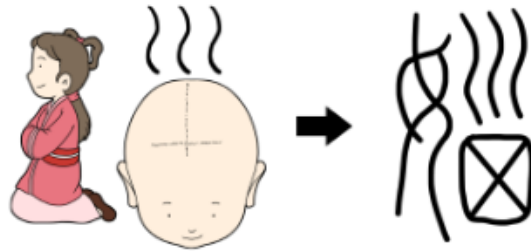
乃

소전

乃

해서

회의문자①



惱

번뇌할
뇌

惱자는 '번뇌하다'나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惱자는 腦(골 뇌)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腦자는 정수리로 드나드는 기(氣)나 숨구멍을 표현한 것으로 '뇌'나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 腦자를 자세히 보면 머리 위로 아지랑이가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惱자는 이렇게 머리 위로 아지랑이가 그려진 腦자에 心자를 결합해 마치 머리에서 열이 나는 것과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사실 소전에서는 女(여자 여)자가 들어간 嫪(괴로워할 뇌)자가 '번뇌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지만, 해서에서부터는 惱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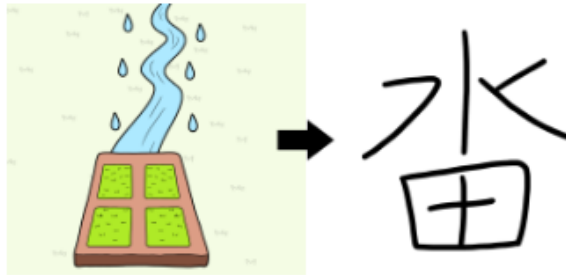
嫪

소전

惱

해서

회의문자①



畚

논 답

畚자는 '논'을 뜻하는 글자이다. 畚자는 水(물 수)자와 田(밭 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1년에 1모작만 가능한 한국에서는 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논에 물을 가득 담아 재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畚자는 이렇게 물을 가득 담아 재배하는 '논'을 뜻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는 '수전(水田)'이라 한다. 사실 畚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로 중국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畚자의 옛 글자는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논'이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고 있다.

畚

해서